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적인 논의가 갖는 의미론적, 논리적, 그리고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나) 윤리학의 목적은 기존의 도덕 규범을 활용하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① (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인간의 실천 지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② (가): 윤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 ③ (나): 특정 공동체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④ (나): 이론적 규범과 독립적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적 진술의 논리적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의(仁義)는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인의의 단(端)이다.  
 을: 인의(仁義)는 큰 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지혜가 나타나면 큰 위선이 있게 되고,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않으면 효가 있게 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충신이 있게 된다.

- ① 갑: 옳음과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은 지(智)를 갖추었다는 단서이다.
- ② 갑: 모든 사람은 선한 본성을 타고나지만 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 ③ 을: 도(道)는 만물의 근원이자 이름(名)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다.
- ④ 을: 통치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도(道)를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진정한 덕(德)이 실현되는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에 부합할 수 있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 ① 발화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청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는 모두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발화에 대한 비판 가능성은 합리적 발언을 개선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보편화 가능성 검토를 위해 발화자 자신의 준칙을 타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 ⑤ 발화자의 주관적 견해의 극복은 올바른 담론 형성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 일반은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이런저런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든 간에 항상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

학생 A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에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콘서트 입장 표를 살 돈이 없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라도 용돈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거짓말이 쾌락의 질적인 측면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 ② 거짓말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 ③ 거짓말이 지나침과 모자람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생각하세요.
- ④ 거짓말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세요.
- ⑤ 거짓말이 사회적 관행에 내재된 선을 성취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세요.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을: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바라볼 경우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로 기술에 종속되며,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보 기>

ㄱ. 갑: 기술이 인간과 무관하게 스스로 행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ㄴ. 을: 현대 기술의 탈은폐 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ㄷ. 을: 인간이 제작한 도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도 기술에 포함된다.  
 ㄹ. 갑과 을: 인간은 기술 활용 방법에 대해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다. 가치들이 사회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또 그럴 수도 없다. 나는 사회적 가치가 아닌 다른 어떤 종류의 가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열린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일부 가정 용품들은 사적이면서도 정서적인 이유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오직 문화 안에서만 이런 물건에 대해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 ①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은 존재한다.
- ② 사회적 가치들이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다.
- ③ 개인들의 자유 교환은 단순 평등 상태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다.
- ④ 특정 개인이 경제적 영역 내부의 가치를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⑤ 정치적 영역에서의 가치가 다른 모든 사회적 가치를 지배해야 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을: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개개인들이 모두 재산권을 평등하게 향유한다. 사회 계약은 이러한 재산권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보 기>

ㄱ. 갑: 주권자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개인의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다.  
 ㄴ. 갑: 국민은 통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ㄷ. 을: 자연 상태의 모든 개인은 각자가 공평 무사한 재판권이 된다.  
 ㄹ. 갑과 을: 사회 계약 당사자의 생명권은 양도 불가능한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와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술가로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타고난 예술가들을 찾아내야 한다.

을: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 ① 갑: 예술은 미추(美醜)의 요소를 그 자체로 모두 표현해야 한다.
- ② 갑: 예술은 사물을 모방하며 이데아 자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을: 예술이 갖는 가치는 예술 그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 ④ 을: 예술은 쾌락을 단순히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을 가능하게 한다.
- ⑤ 갑과 을: 예술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상 한갓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존재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통상 한갓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p> <p>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동물과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p> <p>병: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lt;법 레&gt;</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보 기>

ㄱ. A: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해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ㄴ. B: 인간 외의 생명체 중에서는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개체도 존재하지만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개체도 존재한다.  
 ㄷ. C: 꽤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가 도덕적 고려의 주된 근거는 아니다.  
 ㄹ. D: 풀치과 벌치은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을: 폭력으로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국가에도 그러한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이는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보 기>

ㄱ. 갑: 예술에 내재된 폭력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ㄴ. 을: 국가 체제가 공화정으로 확립되는 것은 영구 평화의 충분조건이다.  
 ㄷ. 을: 시민이 외국에 방문하는 것은 박애에 기초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국가들 간의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정해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을: 죽음이 왔을 때 감각이 없어 고통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 ① 갑: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것은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② 갑: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대해 기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③ 을: 죽음을 통해 개별 원자로 분해되는 것은 오로지 육체뿐이다.
- ④ 을: 인간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죽음은 삶과 더불어 인간이 겪는 여러 고통에 포함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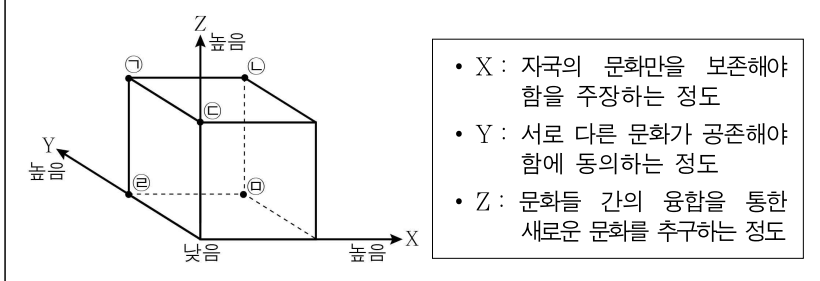
갑: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부권주의적으로 행위해선 안 된다. 또한 원조의 최종 목표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히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을: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기반한다.

<보 기>  
 ㄱ. 갑: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모두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ㄴ. 갑: 천연 자원의 분포는 국가의 정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ㄷ. 을: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ㄹ. 갑과 을: 원조를 통해 모든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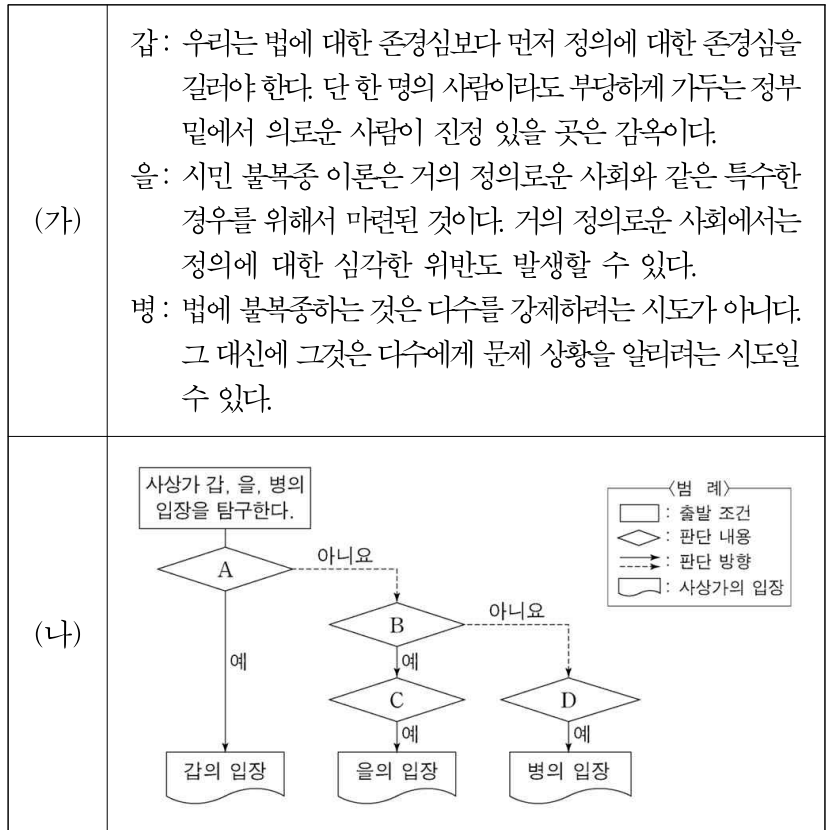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기존 문화와 이민자 문화는 각각의 고유성을 갖는다. 비록 타국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이에 하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기존 문화와 이민자 문화를 섞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기존 문화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이민자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그들의 자아관 형성을 저해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최후의 수단이 아닌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ㄴ. B: 공통의 정의관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할 수단이 아닌가?  
 ㄷ. C: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행되어야만 합당한가?  
 ㄹ. D: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법에 대한 존중심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 그렇지만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모든 일반적 사실들은 안다.  
 을: 정의의 원칙은 취득·이전·교정에서의 원칙을 포함한다. 모든 현실적 상황들이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절도, 사취, 수탈 등의 부정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의 원칙이 제시된다.

<보 기>  
 ㄱ. 갑: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천부적 자산에 대한 권한을 부정한다.  
 ㄴ. 갑: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자유 체계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ㄷ. 을: 취득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이전의 원칙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다양한 천부적 재능들 간의 불평등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가장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백성의 도(道)는 항산(恒産)이 있는 경우는 항심(恒心)도 있게 되지만, 항산이 없는 경우는 항심도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항심이 없으면 방탕해지고 간사해져서 멈추지 못할 것이다.

<보 기>

ㄱ. 갑: 절제는 지혜가 요구되지 않는 계층에도 모두 요구되는 덕목이다.  
 ㄴ. 을: 군주가 갖는 통치권은 하늘의 명(命)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ㄷ. 을: 항심(恒心)을 갖기 위한 항산(恒産)이 불필요한 백성도 존재한다.  
 ㄹ. 갑과 을: 누구나 통치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① 현대 기술은 생명이 없는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된다.
- ② 현대 기술이 삼는 대상은 다른 대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 ③ 현재 실존하지 않는 대상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이다.
- ④ 선의 인식은 악의 인식보다 현세대에게 더욱 설득력을 가져다 준다.
- ⑤ 책임 윤리는 현대 기술로 인한 결과를 모두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1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적 행위는 부부 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는 상호 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후손을 이을 목적을 가져야 하고, 자녀 양육을 염두에 두어 사회적 기여를 의도해야 한다. 성적 행위는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성적 행위는 상호 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가 전제된 성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호 간의 인격적 교감을 고양할 수 없는 성적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성적 행위는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가): 성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사랑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 ② (가): 부부 간의 성적 행위는 자녀 양육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 ③ (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는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 ④ (나): 상호 교감을 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 ⑤ (가)와 (나): 성적 자유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만을 수반하여야 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사회 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살인자가 될 경우 사형을 받겠다는 것에 동의한다.</p> <p>을: 누구든 그가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다.</p> <p>병: 사형은 또한 사람들에게 잔혹함의 본모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을 순화시켜야 할 법률이 잔혹한 본모습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1;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법 레&gt;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lt;예 시&gt;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살인자를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형벌은 잘못된 것임을 간과한다.
- ② B와 E: 형벌은 공동체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형벌의 확실성과 잔혹성은 범죄를 예방하는 속성임을 간과한다.
- ④ D: 범죄자가 사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형 반대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을 간과한다.
- ⑤ F: 계약 당사자들이 양도한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함을 간과한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다. 뜻으로 법을 분별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시설하고 또 그렇게 언설한다. 이것이 곧 생각이고 마음의 기록이며, 언설이다. 이 법은 모두 무상한 유위의 조작과 원(願)을 인연하여 생긴 것이다. 만일 무상한 유위의 조작과 원을 인연하여 생긴다면 그것은 곧 고통[苦]이다.

- ① 세상의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공(空)에 기반하는 것이다.
- ②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긴 산물이다.
- ③ 모든 것은 각자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 ④ 어떤 것의 발생(生)은 다른 것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⑤ 자기(己)와 타자(他)는 서로 의지하지만 본질적으로 독립된 존재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